

## 제 2편: 서양정치사상의 연원과 전개

### 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와 사상

#### (1) 플라톤(Pluton)의 생애와 사상

##### 1). 플라톤의 생애

플라톤은 별명이며 그 뜻은 거인을 뜻한다. 조부가 그에게 명명한 것은 아리스토클레스(Aristokles)이다. 그의 아버지는 아리스톤(Ariston)이며 어머니는 페릭티오네(Perictione)이다. 플라톤가는 당시 토지를 많이 소유한 토지귀족들이 득세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지귀족은 아니고, 정통적 민주파에 속하며 그 자신의 가계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

플라톤의 생애는 크게 나누어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 1기는 B. C. 427년경에서 B. C. 399년까지이며, 이는 그의 청년기에 속한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청년으로서의 일반적인 교육을 받았고, 특히 문학과 과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희망은 정치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소크라테스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의 스승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매우 존경했는가 하면, 소크라테스도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것 같다. 그 같은 사실은 그의 저작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청년기의 플라톤에게 있어 중대한 사건은 소크라테스의 사망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음독 사망케 하였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사상과 언론으로 인한 아테네 정치에서의 최초의 희생자를 만든 것이며, 이것이 플라톤에게 준 충격은 매우 컸었다. 그는 여기에 정치일반에 대한 욕망을 느끼게 되고 정치가로서의 꿈을 철학과 교육을 통하여 실현코자 하게 만들었다.

제 2기는 B. C. 399년에서 B. C. 387년까지로 이 시기를 편렵기라 부른다. 소크라테스의 사망 후, 정치가로서의 야망을 버리고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메가라·시라쿠사·이집트·이탈리아 등을 순방한다. 플라톤은 메가라에서 당시 일반적인 저작방법이었던 대화형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시라쿠사에서 후일 그의 제자가 된 디온(Dion)을 만난 것은 플라톤의 말기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제 3기는 B. C. 387년에서 B. C. 367년까지의 20년간이며, 플라톤으로서는 40세에서 60세까지에 걸친 시기가 이에 속한다. 이 시기는 그의 생애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다. 편력을 마치고 귀국한 플라톤은 정치적으로 좌절된 그의 꿈을 철학과 교육을 통해서 구체화하려고 하였다. 그는 그의 학교 아카데메이아(Akademeia)를 창설하고 거기서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는 플라톤의 업적 중 영구불변의 업적의 하나로 유럽에 있어 대학의 전통은 여기에 그 시원을 두고 있다. 그의 이상국가론은 아카데메이아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는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상아탑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또 그들은 최대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사상이었다.

제 4기는 B. C. 367년에서 B. C. 347년까지이며 이 시기는 그의 말년에 속한다. 그의 나이로는 60세에서 80세까지이며, 그는 60세의 나이로 제 1차 때 알게 된 디온의 초청으로 시라쿠스를 방문한다. 방문 목적은 당시 시라쿠사는 시칠리아에 있어서 가장 강대한 도시국가였는데 참주 디오니시우스 1세가 도시국가간의 대립을 이용해서 강대하게 된 도시였다. 디오니시우스 1세가 죽자, 디오니시우스 2세가 참주로 등장하였는데, 그의 외숙부가 바로 디온이었다. 디온은 플라톤을 초청하여 방탕생활을 하고 있는 디오니시우스 2세를 철인지배자로 교육시키고자 해서 그 스승인 플라톤을 초창하였던 것이다. 플라톤은 그의 『제7서한』에서 아무런 구체적 임무에 손을 대보려고 하지 않은 인간, 즉 말뿐인 인간으로 생각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행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참주 디오니시우스는 철학에는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었으나, 디온과 플라톤이 자기를 축출할 음모를 꾸미었다고 느낀 나머지 디온과 플라톤을 시라쿠사에서 추방하고 만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아테네로 돌아오고, 시라쿠스 여행은 그가 마음속으로 염려했던 바와 같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2) 플라톤의 저술

플라톤의 저술활동은 일반적으로 3기로 나누어지고 있다. 아카데메이아를 창설하기 이전인 40세까지가 초기며, 그 뒤 아카데메이아를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에 힘을 기울이던 40에서 60세까지를 중기, 그리고 60세 이후가 후기에 속한다. 그의 저술은 13의 서한,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34편의 대화편이 있다. 그의 저술은 전부가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화 형식은 당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던 저술방식이기도 하다.

플라톤의 저술이 대화 형식을 취하게 된 이유는 학문은 그에 있어서 토론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이었다. 토론에 반대자가 참여함으로써 진리의 탐구에 서로 공동연구자가 되는 것이며, 교과서 형식은 생기가 없으므로 문제의 복잡성이나 진리의 심오성을 이해하는 데는 대화 형식이어야 한다는 것이 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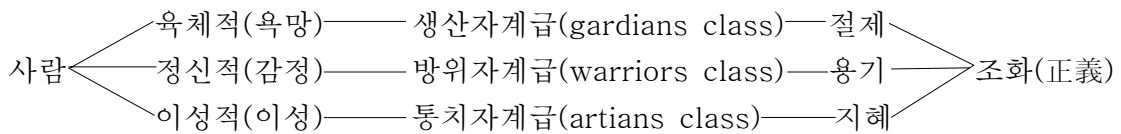
라톤의 주장이었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국가(Republic)』, 『정치가론(The Staesman)』, 『법률론(Law)』 등이 있다.

### 3) 플라톤의 사상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사상사에 있어서 고대·중세·현대를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두 사람 중에서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플라톤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즉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독교 신학이나 철학이 적어도 13세기에 이르기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었다기 보다는 플라톤과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양사상사에서 볼 때, 플라톤은 다른 어느 사상가보다도 더 많이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플라톤의 관심사는 정의의 문제였다. 그는 개인과 국가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병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곧 개인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다. 플라톤이 개인과 국가가 서로 통한다는 것은 3종류의 심리로서 인간 행위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육체적인 욕구와 정신(감정), 이성이 있는데 이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려하게 하고, 감정은 명예와 절조를 중시하게 하며, 육체적 욕구는 일하게 하여 획득하게 한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3가지 기질을 조절(temperence)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행위는 과오를 범하게 되고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지나친 이성은 미덕이 아니라고 했다. 플라톤은 모든 사람은 기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되며, 그들 세 종류의 사람들은 국가의 여러 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플라톤은 우수 인종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혼인제도를 마련하여 국가가 혼인 대상을 지정하여 줌으로서 우수인종(금질)과 열등한 인종과의 결혼을 막으려 했다. 그리하여 이질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다시 공처(公妻)제도로 부모와 자식 간에 인식을 못하게 하였다.

플라톤은 특히 정치가의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을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초등교육은 시민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는 20세까지의 교육을 말하며,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초등교육 내용으로서는 ①문법적인 강독과 필기 ②음악과 시가 등 정서교육 ④산수와 기하학과 같은 초보적인 학습 ⑤체육으로서의 체조와 운동경기를 18-20세까지 받

고, 2년간은 군사훈련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고등교육은 초등교육을 마친 사람으로서 35세까지인데 교육내용은 천문학·윤리학 그리고 정밀한 수학과 기하학을 30세-35까지 5년간은 주로 변증법의 연구과정에 들어간다. 이처럼 이상 국가를 위한 교육과정은 35세에 끝나고 이 교육과정이 끝난 사람은 방어자계급에 들어가서 정치적 직무와 군사적 실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50세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서 15년간의 생활을 마친 사람 가운데서 일련의 시험을 거쳐 철학 연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이 통치자계급에 소속하게 된다. 그들은 공처와 공산의 생활을 하는 것이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치가의 교육이 엄격했기 때문에 플라톤은 통치는 전면적인 동시에 절대적이라고 했는가 하면, 정치는 의사와도 같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 (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생애와 사상

### 1)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

아리스토텔레스는 B. C. 384년 트리키아해에 면해 있는 마케도니아의 칼키디케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스인의 소 식민도시 스타키라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출생했을 때, 플라톤의 나이는 43세였다. 그의 가계는 의신 아스클레피오스의 혈통을 이은 가문으로 전해오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러한 가업을 이어 의사로서도 명성이 높아 마케도니아왕 아민타스 2세의 시의(侍醫)가 되어 자연철학과 의학에 관한 저서를 남기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후일 현저하게 생물학적 경향을 띠게 된 것도 그가 어릴 때 아버지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인간은 날 때부터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 고 하면서 감각 가운데 시각이 가장 우수하며, 또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에는 방종한 청년으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일시 군무에 종사했으나 그것도 그만두고 팔고 남은 재산으로 개업의가 되고자 했으나, 그것도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수사학과 철학을 공부했다고 한다. 그는 18세 때,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아테테로 보내졌고 거기서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에 입학했다. 아카데미아에 입학한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사망한 B. C. 347년까지 20년 동안 플라톤의 제자로서 학업에 몰두하게 되었다.

플라톤이 80세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그의 나이는 38세였다. 스승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사망을 계기로 아카데미아를 떠나 외국여행에 오른다. 당시 플라톤에게는 출중한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크세노크라테스(Xenokrates)였고, 다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였다. 플라톤은 크세노크라테스에 대해서는 “박차를 필요로 하는 당나귀”이며,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서는 “자갈을 필요로 하는 준마” 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때 3년간 소아시아에서 지내면서 그의 과학적 관심사인 해양생물학을 연구하였다. B. C. 343년 훗날 알렉산더(Alexander) 대제가 된 알렉산더 왕자의 개인교수가 되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3세의 소년이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품성에 어떤 감화를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플라톤이 사망한 후 그의 아카데메이아에 머물지 않고, 별도의 대항적 학원을 개설하고 그를 따르는 약간의 아카데메이아 회원을 포섭하여 교육하였다. 그는 수학 대신에 생물학과 역사를 연구의 기본과목으로 만들고 이것에 의하여 아카데메이아학회의 플라톤 관로부터 벗어나 그 자신의 교수법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정치학』도 대화가 아닌 논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스타일은 플라톤의 대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또한 플라톤이 주로 수학에 관심을 둔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에 두었다. 그는 특히 제자들과의 강의에 있어서 오전에는 철학상의 어려운 문제—윤리학·자연학·형이상학을, 오후에는 통속적인 문제—수사학·변증법을 강의하였다.

##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술 활동을 정력적으로 하였다. 저술 내용은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의 대상도 매우 다양하다. 그의 저작 목록은 3세기경 고대철학자의 전기체 철학사학자인 디오게네스 라에라티오스(Diogenes Laeraios) 등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학자들에 의해 정리되었는데, 그것들은 현재 3종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으로서 고대에 알려졌던 것은 약 400편이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약 50편이며, 그 중에서도 그의 진작(眞作)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25편에 불과하다. 그의 저술에 대한 세 가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제자들의 요구나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 출판을 목적으로 한 저작, 특히 그 대부분은 대화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대부분은 없어지고 후대인들의 기록에서 그 단편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 가운데서 다소간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영혼에 관해서』·『철학에 관해서』·『철학에 의 권고』 등이 있다.

둘째, 그 다음의 저술은 학문 연구의 자료로 편집되었는데, 현존하는 것으로는 『아테네인의 국가』가 유일할 뿐이다.

셋째, 이 부분의 저술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학술적인 논문, 강의안이며,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3종에 불과하다. 그의 사상과 학설은 이 3종의 것이 전해 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종류의 것으로 아직 잔존하고 있는 것은 약 50종에 달한다. 그것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이 아닌 제자들의 것과 2세기 후의 페리파토스 학도들에 의해 위작된 것도 있으나, 진작은 25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중에서 윤리학과 정치학에 관련된 것은 『니코마코스의 윤리학』·『대윤리학』·『에우데모스 윤리학』·『정치학』 등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으로 평가되는 저술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정치학』이라 할 수 있다. 전자야말로 윤리학에 관한 것이며, 이는 플라톤에서와 같이 본질적으로 윤리는 정치와 분류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데서 그 스승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 3)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

정치 관계의 저술 중에는 『비교헌법』이 유명한데 이것은 158개 국가의 헌법을 수집·교정하여 완성시킨 자료집으로 현재 157개국의 헌법은 유실되어 없으며, 오직 아테네의 헌법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의 『윤리학』은 비록 개인의 도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인의 전통적인 관념의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다. 여기서 그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데 필요한 도덕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정치학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스 초기 학자들의 연구 대상은 자연과 사람 두 종류였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연구는 사람의 본질 연구에 중점을 두었을 뿐 자연의 연구를 중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는 달리 풍부한 생물학적 기초와 의학적 소양 때문에 그의 지식 범위는 앞의 두 사람보다는 매우 넓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래 그 천성이 정치적 동물이다(Man is by nature a political animal). 그러므로 단순히 우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날 때부터 국가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는 인간 이상의 존재(神)이거나, 아니면 인간 이하의 존재(야수)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정치적 동물인 인간은 사람과 더불어 살려는 천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정신상 국가를 잃어버리면 인간의 사회성은 충족될 수 없고, 사람들의 도덕적인 표준도 세울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善)도 발현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개인과 국가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개인의 가치는 국가 안에서만 비로소 의의를 가지게 됨으로 사람은 국가를 떠나 독립할 없는 존재라고 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인간성에 기초한다고 했다. 사람이 만일 독립할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경향(群居性)은 없을 것이며, 균거로 인한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국가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가장 단순하고도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고, 또 사람은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만족스런 생활을 추구하다가 부락을 형성하고, 부락이 결합하여 자족적이 공동체로서의 성질과 지위를 가지는 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람의 천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인 플라톤과는 달리 가정

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플라톤은 국가의 목적을 정의에 둔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에 두고 있었다. 국가가 선을 해야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서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공처·공산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성에 대한 위배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불행만을 안겨주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플라톤은 통치자를 의사로 인민을 환자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치자를 요리사로 인민을 손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는 정치의 목적은 위민에 있기 때문에 정치의 호불호는 통치를 받고 있는 인민이 평가하여 통치자의 독단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민주정치에 있어서도 인민의 질을 높여 명령하고 명령을 받아들이는 중산계급이 많게 되면 가장 좋은 정치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의 많은 정치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형태에도 혁명 요인이 기존의 정치체제를 뒤엎을 수 있으므로 정치체제는 무단히 개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혁명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원인을 다 열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심리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일부의 사람들이 불평을 느끼면서 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평등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재능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느끼면서 재력(才能)과 재력(財力)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대적인 표현을 빌리면 기능에 따른 보수 지급이 평등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을 주관적인 심리 감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일부 사람들은 불평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혁명 발생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하였다. 기실 다수인의 절대적인 평등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준다면 곧 재능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평등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불평의 소리가 곧 혁명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는 소수인의 불평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문제를 형성하여 마침내는 혁명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처럼 주관적인 심리인 불평을 혁명의 원인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어떤 우수한 정치체제도 혁명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치체제는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혁명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비밀경찰을 두어 주위 인물과 각료들의 동향을 살피고 만일 음모를 기도하는 기미가 보일 때는 신속히 처리하고, 부녀나 노예로 정탐 보고하게 하는 것도 왕이 잘 이용하던 방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외전쟁을 통해 야심 있는 귀족들을 제거 또는 그들로 하여금 요새를 지키게 하거나 험지에 몰아넣어 살인의 오명 없이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기도 했고,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일으켜 인민

으로 하여금 반란치 못할 만큼 탈진시켜 일차적인 욕망이외는 감히 생각도 못하게 하거나 거대한 공사를 통해 임금의 위엄을 높이는 것도 일종의 혁명을 방지하는 방법이였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정치학과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윤리학은 정치학의 일부로서 인간에 있어서의 선을 연구하는 덕론(德論)이었다. 덕이란 각 사물에 고유한 우수성을 의미하고, 행복은 영혼의 유덕한 활동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이였다. 그러한 덕은 용기와 같은 습성적 덕과 지혜와 같은 지성적 덕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습성적 덕은 양극단의 중간에 있고, 그것은 즉 실천성이 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저술 가운데는 윤리에 관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둘은 일반적으로 그의 제자들의 저작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 하나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그 순수성에 있어서 의심을 받지 않고 있으나, 그 책도 일부는 제자들의 저술에서 본 딴 것이라고 하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주로 당시의 교양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 그의 윤리관은 플라톤의 그것과는 달리 신비적인 종교적인 요소가 개재돼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이 행복이요, 또한 그것이 바로 영혼의 활동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플라톤이 영혼을 두 부분, 즉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눈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비이성적인 부분도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부분과 탐욕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덕에는 예지적인 덕(intellectual virtue)과 윤리적인 덕(ethical virtue)의 두 가지가 있는데, 예지적인 덕은 배워서 얻을 수 있고, 윤리적인 덕은 습관에서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때로는 올바른 습성에 익숙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선행을 하기 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와 같이 선행이 습관화됨으로써 선행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선한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중용의 사상에 대해 말하면, 극단은 좋지 못하다. 덕은 다 두 극단의 중간에 속한다. 여러 가지 덕을 검토하여 보면 잘 알 수 있으니, 예를 들면, 용기는 비겁함과 만용의 중용이며, 너그러움은 방탕과 인색의 중용이며, 긍지는 허영과 비굴의 중용이며, 기지는 익살과 아둔함의 중용이며, 겸손은 수집음과 몰염치의 중용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에 대해서도 플라톤과는 달랐다. 플라톤은 금욕주의적인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이라는 말을 행복과 구별하여 쓸 정도였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이 없이는 행복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쾌락에 대

한 태도를 세 가지로 구별하였다.

- ㉠ 쾌락은 결코 선이 될 수 없다는 태도
- ㉡ 어떤 쾌락은 선이지만, 대부분의 쾌락은 악이라는 태도
- ㉢ 쾌락은 선이지만 최고의 선은 못 된다는 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 쾌락 중에서 첫째 것을 부정하였다. 이유인즉 고통은 분명히 악이므로 쾌락은 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그는 쾌락은 다 육체적이라는 견해를 배경하면서 쾌락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이 선한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가 아니면 악한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 2. 그리스 말기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사상

### (1) 그리스 말기의 정치·사상적 상황

알렉산더(Alexander) 대제가 출현한 후 그리스인들의 관념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민주주의의 아테네 사람들(自由民)은 모두 정치에 참여하였고, 귀족정치의 스파르타의 모든 귀족들도 부분적이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인들의 전통적인 관념 가운데 인간은 정치를 떠날 수 없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는가 하면, 사람은 국가 안에서는 국가와 공민은 일체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정치는 궁중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민들은 어떠한 정치적 견해도 표시할 수 없었으므로 개인이야말로 정치와 무관하며, 정치의 객체로밖에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에 있어서 국가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에는 비록 민주사상은 있었지만, 개인주의는 없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한 후에는 정치는 비록 중앙집권적 방식을 취했지만, 개인주의는 대두하게 되었다. 아테네인들은 생활을 중시하였지만, 그들은 생활인으로서의 개인이 아닌 공민들이었다. 아테네신전은 아테네 시민들의 공동의 예배 장소였고, 공동시장(stoa)은 아테네인들이 공동으로 물물을 교환하고 휴식하는 휴식처였다. 희극에서 운동에 이르는 모든 행사는 아테네인 공동의 오락이었다. 그러므로 아테네인들이 인생을 중시하는 것은 인간주의(Humanism)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개인주의(Individualism)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리스의 전통적인 관념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와 같이 인간은 국가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제가 등장한 후, 그리스와 전통사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그 같은 변화란 사람은 국가를 떠나더라도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개인주의의 정신에 접근함으로써 개인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그리스 사상은 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지위를 중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국가의식을 가지고 그리스인 이외는 모두 야만민족으로 간주하는 편협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제가 대제국을 건설한 후에는 대제국 안에는 수많은 종족이 같은 정치권속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리스인들이 야만인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그리스인과 같이 대제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상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상 종족적인 우열을 발견할 수도 없었다. 더욱 알렉산더의 동정(東征)은 그 병사들로 하여금 현지의 여성들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종족간의 한계는 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당시의 사상가들은 사람 그 자체의 가치로부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게 되었으니, 이는 곧 그리스 말기 사상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도시국가의 영역이 무너짐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다룰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곧 그리스 사람이 아니면 야만시 했던 그들의 착각을 일깨움으로써 영혼은 평등하다는 설이 사실로 입증되게 되었던 것이다.

## (2) 그리스 말기의 대표적 사상

### 1) 에피큐로스의 쾌락의 문제

그리스 말기 에피큐로스(Epicurus)의 사상은 상당히 성행하였으나, 오히려 그의 영향과 가치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중시되었다. 그는 아테네에 학원을 세우고, 그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 대부분은 정치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다. 정치는 지혜 있는 사람이 토론하거나 참여할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정치는 인생과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에피큐로스는 인생의 의의는 쾌락을 구하는 데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쾌락을 뜻한다. 즉 욕망의 만족을 뜻한다. 최대의 쾌락은 곧 최대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단, 쾌락의 의미는 감각상 또는 물질상의 유쾌라고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상의 만족을 쾌락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물질은 행복의 기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쾌락을 얻으려 할 때는 감정상의 해방(free play of passions)이라고도 한다. 사실상 감정상의 억압은 고통이고 그것은 쉽게 비정상적인 심리-좌절(frustration)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를 중심으로 한 에피큐로스학파는 인생의 의의는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말하는 쾌락은 신체상 고통이 없고, 정신상 불안(suspense)이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물질상의 만족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유쾌가 아니라,

심리상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free from fear), 즉 걱정이 없는 쾌락을 뜻한다.

에피큐로스는 쾌락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하나는 격동의 쾌락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의 쾌락이다. 전자는 정치상 명예나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 사람들로 부터 선망과 존경을 받지만 이런 종류의 쾌락은 감정상 쉽게 평정을 얻기가 어려움으로 격동의 쾌락이라 한다.

그러나 안정의 쾌락은 마음이 편안할 뿐 아니라, 어떠한 정서상의 긴장이나 격동도 없기 때문에 일종의 내재적인 쾌락이므로 심리상 완전한 소요(逍遙)요 우려(憂慮)가 없는 쾌락인 것이다. 에피큐로스는 이러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의 종교와 미신을 극력 배척하였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관념—사후의 고통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의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류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두려움이라고 했다.

에피큐로스는 사람에게에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도 일종의 물질로서 사람의 신체에 흠어져서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는 영혼은 육체에 의타하여 감각과 행위를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인체와 함께 없어진다고 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라고 한 그는 신은 사람보다 총명하여 사람이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지는 것이다. 이 같은 에피큐로스의 사상은 후일 랑만주의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 2) 스토아학파의 사상

스토아학파의 사상은 에피큐로스학파와 같은 시대에 대두되었다. 그러나 에피큐로스학파보다 그 역사는 더 길며, 그 학설도 에피큐로스학파처럼 고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기원전 3세기초의 이 학파의 창시자인 제논(Zenon)은 개인을 모든 정치적 변화에 독립적이고, 모든 정치적 법규를 초월하는 우주적 자연법에 복종하는 우주적 인간사회의 일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개인의 중요성에 반대하였다.

당시 이러한 유의 개인주의는 에피큐로스의 향락주의에 비하여 훨씬 영향력이 많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인의 기질과 견해에 강력한 호소력이 있었고, 세계법과 세계시민에 대한 로마인의 관념에서 그 직접적인 표현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념은 후기에 와서 성직자의 기독교적 개념으로 그리고 신의 의지로서의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와 같이 스토아학파는 개인주의적 신조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 원리는 결국 로마제국주의와 기독교의 세계주의의 양면으로 구체화되었다.

스토아학파는 인생은 마치 무대와 같아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배역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배역이 제왕이 되기도 하고, 노예도 되고, 부자도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다 극작가가 결정하여 주고, 연기자는 이러한 배역을 잘 해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영혼 평등 관념을 낳을 수가 있었고,

그 결과 황제의 영혼이 노예의 그것보다 결코 고귀하다고 보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와 주장이 후일 평등주의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견유학파(犬儒學派=Cynics)가 있었는데 그 근원은 소크라테스에 두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일체를 부정하였는데, 그 제자 중 일파는 느끼는 일체는 다 믿을 수 없으며, 다만 자신의 영혼만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서 영혼으로 하여금 해방의 방법을 얻게 하려면 가장 소박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인물이 디오게네스(Diogenes)이다. 그는 어떠한 영화나 명예 그리고 권력에도 초연하여 그리스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

어느 따듯한 봄날 햇볕을 쬐이고 있는 디오게네스의 옆을 지나가고 있던 알렉산더가 “나는 알렉산더 대제다” 라고 스스로 소개하자, 디오게네스는 “나는 디오게네스 들개이다” 라고 했다. 알렉산더가 다시 묻기를 뭐 필요한 것이 없는가 하니 “나의 태양을 가리지마시오” 하였다고 한다. 버트렌드 러셀은 그의 *The Story of Civilization*에서 견유학파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back to nature)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 3. 로마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사상

#### (1). 로마제국의 정치와 문화

로마의 오랜 기간에 걸친 평화는 문화를 널리 보급하는 데 있어 큰 의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와 관련된 단일한 문화에 익숙하게 하였다. 로마의 헬레니즘 문명이 마호멧 교도에게 전달되었으며, 또 이것은 서부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로마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고찰하기 전에 먼저 로마 정치사에 대하여 개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알렉산더의 정복은 지중해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지역은 기원전 3세기초에는 강대한 두 도시국가인 카르타고와 시라쿠사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제 1차 및 제 2차 포에니 전쟁으로 시라쿠사를 정복하게 되자 카르타고는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속국에 지나지 않았고, 스페인은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프랑스는 시이저에게 정복되고 영국은 그보다 100년 후에 정복되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은 그 전성기에는 국경이 유럽에서는 다뉴브강과 라인강에 이르렀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사막까지 미쳤다. 이처럼 광대한 영토를 점유하고 있던 로마제국은 그리스처럼 그리스만큼 그렇다할 만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문화에 끼친 영향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로마가 희랍사상에 끼친 영향—희랍인들은 로마인들에 대해 공포에 가까운 멸시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희랍인들은 스스로 개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힘이 약했다. 로마는 희랍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었다. 즉 정치적 활동의 기회가 아직도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대부분 희랍어를 알고 있었지만, 희랍인으로서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 결과 로마인들은 희랍의 역사를 읽을 수 있었는데 반하여 희랍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둘째, 희랍 및 동방이 로마에 끼친 영향—헬레니즘의 예술과 문학과 철학이 교양 있는 로마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다른 하나는 반헬레니즘적인 종교 및 미신이 서방 지역 전역에 끼친 영향을 들 수 있다. 희랍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인들보다 월등하였다. 상품을 만드는 솜씨며 농업기술에 있어서나 또는 훌륭한 관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그 밖의 대화나 삶을 즐기는 방법에 있어서나 예술·문학·철학에 있어서도 희랍인들이 훨씬 월등하였다. 로마인들이 희랍인들보다 월등한 것은 전술과 사회적인 단결력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인들이 희랍의 문학·철학·과학 등에 있어서 우수한 희랍의 것들을 그들이 자기네가 다스리는 나라의 문명을 소유하고 이를 보존하기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희랍어를 공부하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및 그 밖의 고대 희랍작가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그러나 만일 아라비아인들이 그 희랍의 전통을 보존하지 않았던들 문예부흥기의 사람들은 고전을 연구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 (2). 로마의 법률과 법률가

로마는 알렉산더 후 또 다른 하나의 대제국이었다. 로마제국은 유럽·아세아·아프리카 등 3대주에 걸쳐 그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상적으로는 그렇다할 공헌을 하지 못했다. 다만 그 이전과 이후를 연결시켜 주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법사상에 있어서는 특이하다.

완비된 로마법전은 로마인들이 후세에 준 공헌 중 가장 기록할 만한 것이었다. 기원전 5세기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고대국가와 마찬가지로 습관법에 따라 법질서를 지키고 있었는데, 습관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귀족들로부터 위임된 법관들이었다. 습관법의 결점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심증적 재량이 지나치게 많은 데 있었다. 특히 법관이 특정 계급과 관계가 있을 경우, 심증적인 자유의 결과는 그 관계된 계급의 이익을 비호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 결과 평민들은 항상 불평의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법전이 있어야 법관은 마음대로 곡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평민들의 요구가 기원전 5세기 로마의 이른바 〈12동판법〉이 있게 된 유래였다. 12동판법은 하나의 성문법전으로 동판에 각명(刻銘)하여 정부청사 앞에

세워줌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이다. <12동판법>은 고대국가의 법률로 관념적으로도 귀족에 편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로마가 제국이 된 후에는 새로운 정세에 적응할 수가 없었다. 로마인들은 로마법으로 로마의 공민을 보호할 수 있지만, 로마인과 비로만인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법규에 근거할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상업상의 편리를 위해 로마법은 그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변경의 방법으로 첫째, 황제의 칙령—이것은 법률가에 의해 모두 법률적인 작용을 하였다. 둘째, 법관의 판례—법관은 조문이 없는 안건을 처리할 때, 자신의 양심에 의거 습관과 관례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며, 이러한 판결은 후일 동일 안건 처리에 근거가 되었다. 셋째, 저명 학자의 언론—로마법은 습관법이기 때문에 저명한 학자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정의를 내린 것 또한 적지 않았다.

### (3). 만민법과 자연법

본래 법전 편찬이란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작업이었다. 왜냐하면 <12동판법>은 너무 간단하다고 해서 칙령·판례·학자들의 의견을 첨부하였으므로 그 양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도 중복되고 상충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취사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로마 법전이 정리되고 편찬되는 과정에서 법률가는 각종 법률들의 차이와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우월 의식에 근거하여 법률을 만들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어떤 원칙을 찾아 그 기초를 삼을 수는 있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법률에 대한 견해와 관념상의 일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법률관념이 이른바 <만민법>이다. 또한 여기서 로마인의 법률사상도 발생하게 되었다.

로마 초기 사상계는 스토아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스토아철학의 주요사상은 자연법 관념이었다. 그러나 당시 만민법과 자연법은 이론상 적지 않은 논쟁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노예제도에 대하여 스토아파들은 그것을 인위법(人爲法)의 결과라고 한데 반하여 당시 로마인이나 식민지인들은 노예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그것을 만민법의 일부로 인정하려 하였다.

법률고문인 울피아누스(Ulpianus)에 있어서 자연법은 최고였고, 만민법은 그 다음이었으며, 국내법은 최하위였다. 만민법은 여러 국가 간의 서로 같은 법률습관으로 그것은 자연법의 표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연은 법률의 최고 이상이므로 그것은 보편이성(Universal Reason)과 정의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내법은 자연법의 보편적인 적용과 적응이기 때문에 국가 환경의 변화는 그 작용도 달라지게 함으로써 상이한 많은 국내법의 표현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은 법률원칙이 되었던 것이다.

## (4). 법률의 기원과 본질

로마 제도 중 법률은 원로원이 제출 부락회의에서 비준을 받아야 비로소 발효하였다. 로마사상가의 마음속에는 법률은 반드시 인민의 공동적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인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발효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칙령도 인민의 수공을 거치지 않으면 실질상의 힘은 발생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문예부흥시대(Renaissance)에 와서 입법은 인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되었고, 심지어는 정부의 모든 정책도 인민의 최종적인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민본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마의 이러한 제도는 황제의 집정으로 파괴되었고, 황제의 칙령은 곧 법률이 되었는데 이것은 로마사상가들의 관점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황제는 원로원에서 선출하고 원로원은 인민이 선출함으로써 황제는 간접으로 인민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가 발표한 칙령은 인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율리아누스는 법의 본질에 대하여 말하기를 법률은 공정의 과학이라고 하면서 “법률은 사람과 신에 관한 지식이며 공평과 불공평에 관한 과학이다” 라고 하였다. 공정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공정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로마법률사상과 동양법률사상은 모두 법률사상의 시발이기는 해도 그것이 다른 점은 서양사상가는 법률은 공정의 학이라고 한데 반하여 동양의 법가는 법률은 치술(arts of politics), 통치의 도구로 군주의 전유물로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이 동·서양에 있어서 법률 기원상의 차이라면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에서 말하는 법률은 권리 위주의 내용이나 권리의 상대적 의미는 의무이다. 서양정치사상 중 평등과 권리 사상은 그리스의 공정(정의)관념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하겠으며, 그것은 로마 법률가들이 발전시키고 구체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는 각자가 자기의 직분(分)을 지키는 것이었고, ‘분’은 후일 권리와 의무 관념을 배태하기에 이르렀다. 고대의 ‘분’은 모든 사람들의 지위와 계급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달랐다. 그리하여 사회 지위와 계급이 다른 사람은 상이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인들은 서로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마 법률가의 ‘법’은 공정(정의)과 불의를 감별하는 표준이었기 때문에 ‘법’은 사람의 지위를 공공연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부나 인민이나 인민 상호간에 공정의 표준을 세워줌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그 본분을 지킴으로써 영광된 생활은 물론 다른 사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4. 중세의 사회적 상황과 그 평가

##### (1). 중세는 과연 암흑시대인가?

사람들은 서양의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지만, 과연 중세는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암흑시대였는가? 중세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중세를 암흑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 같은 이해는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문예부흥시대의 공적을 지나치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경우, 당시의 예술 창작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여기면서 문예부흥 이전 시대를 암흑과 야만의 시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암흑 야만의 1천 여 년이 지나자 홀연히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그들 인재들로 하여금 고전문학·예술·각종 학술 등이 비로소 재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초엽 낭만주의자들은 이 같은 논조에 반대하면서 중세의 기사는 영웅의 전형이며, 여인들의 용자(容姿)는 후대의 의칙(儀則)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20세기 초엽 많은 역사가들은 역사의 연속성을 믿고 있었는데 문예부흥시대의 많은 열매는 중세에 이미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특히 그들은 옛날 사람들이 소홀히 취급했던 자료를 발굴하여 중세의 경제와 정치에도 불만한 것이 있었다고 했다. 이의 대표적인 인물이 Gierke, *Political Theories of the Middle Ages*·McIlwain, *The Growth of Political Thought on the West*·Carlyle, *A History of Medieval Political Theory in the West* 등이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중세에 대한 상이한 평가는 감정과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중세는 4세기 흉노의 유럽 원정으로부터 그 마지막 시기에 이르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는 12세기 또는 14세기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과 같이 아직까지 정설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중세는 약 1천 여 년 아니면 가장 짧게 잡아도 800년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처럼 장구한 기간이 완전히 암흑이라든지 야만이었다면 일체의 문물은 모두 괴멸됐을 것이며, 유럽인들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암흑시대에도 분명 광명의 일면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과거의 전쟁은 오늘날의 전면전과는 달리 동원된 인원도 많지 않았고, 행군의 속도는 완만했을 뿐 아니라, 무기의 파괴력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는 결코 오늘날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 야만인들의 최초의 침입은 약탈에 있었을 뿐, 약탈지에의 거주에 있지 않았다. 때문에 전쟁 후, 도시는 파괴되고 농촌은 황폐되었다. 더욱 농작물의 수확기에 있어서 그 피해는 대단

하였다.

그러나 교전지역은 매우 좁았기 때문에 유럽은 몇 백년간의 침입과 약탈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지만, 이 같은 전란 속에서도 많은 지방은 안정적인 곳이 없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중세는 그 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하지만, 인민은 그래도 숨 돌릴 기회가 없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중세가 완전한 암흑이 아니었다는 첫 번째의 이유이다.

그리고 문물에 대해 말하자면, 중세는 장기간의 전란으로 도서와 전적을 중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도서와 전적은 인멸되었고, 전쟁으로 지식 계층은 피난하여 현실을 도피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사들은 전쟁에 몰두함으로써 문물은 날로 파괴하여 간 것이 사실이나, 다행이도 침략한 야만인들은 머지않아 천주교에 귀의하였고, 그리하여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던 사원은 더 이상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사적장서의 파괴의 손실은 대단했으나 사원의 소장 장서는 보존이 가능하였다. 물론 일반인들은 유랑하고 학문에 대한 기풍도 소침할 대로 소침했기 때문에 중세의 통치자들은 목불식정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군주들의 성향과 서민들의 운명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을 잘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문물의 발전은 정체되어 있기는 했어도 옛날의 문화가 전부 파괴되지는 않았다. 로마에 집중되었던 문물은 야만인의 침입으로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라비아사람들은 중세에 있어서 최대의 문화 약탈자들이었다. 그리스의 고전적인 서적들은 그들에게 탈취되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아라비아문자로 번역되어 후일 스페인을 거쳐 유럽으로 역류되어 들어갔다. 유럽(12세기) 전기의 문예부흥은 이로 인한 자극에 힘입은 바 컸다. 파리·런던·보로그나(이탈리아)는 중세문화의 중심이 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중세가 암흑만은 아니었다는 두 번째의 이유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세는 파괴 중에서도 수습하는 단계였다는 점이다. 이른바 전도사·봉건영주·기사·농노들은 모두 파괴된 산하의 정리자들이었다. 전도사를 제외한 그들은 지식수준이 낮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로 모든 시간을 사업에 전념함으로써 독서할 겨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비록 그들의 지적 수준은 매우 낮았지만, 실제생활에 있어서의 창조와 건설에 크게 공헌한 것이 사실이었다. 당시 봉건제도도 중세인들이 세운 업적의 하나이다. 이것은 그들이 중세라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생활 방법이었다. 단 봉건은 고대사회의 윤리 및 경제와 정치가 모두 봉건 형식을 따라 변화되어 갔다. 혹자는 봉건을 암흑의 대명사라고 하지만, 중세로 말하면, 그것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필연적인 변화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훌륭한 점도 가지고 있다. 오늘에 이르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대의(代議) 관념은 바로 봉건제도 아래서 이루어진 중요한 업적중 하나이다. 다만 중세인들은 문자를 사용, 이를 기록하고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중세의 산물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이 중세가 암흑만이 아니라는 세 번째의 이유

이다.

중세 이전의 서양문화는 남부 유럽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중세인들의 전파를 통해 중부 유럽 및 북부 유럽으로 최후에는 아메리카로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중세는 암흑시대만은 아닐 뿐 아니라, 문화를 확장한 시기라 할 수도 있다. 문화의 확장 중 교회와 전도사들의 공헌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중세 사원들의 승려들은 곤란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모지에 들어가 사원을 짓고 전도하였는데 도이취·잉글랜드·스코트랜드 등은 다 이 시기에 사원들로부터 힘입은 바 컸다. 특히 승려들의 단정하고 고상한 행위는 그들 지역 주민들에게 감화를 주었고, 이로 인해 사원의 종성이 울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전도사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권위 있는 인물들도 그들의 의견을 듣거나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종교정신은 야만인들을 감화시킴으로써 통치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책임과 인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중세가 암흑만이 아니었다는 네 번째의 이유이다.

중세의 종교사상은 그 대부분이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사상의 계승이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의 두 위대한 종교가인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중세의 교회는 고대 사상의 반항이라고 하지만, 중세의 전도사는 고대 로마의 다신적 Pagans나 다신 사상을 질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전도사들은 고대사상을 접수 융화시키기도 하였으니 고대의 자연법 및 정의 관념은 종교철학 중에 함축 흡수되어 갔다. 그러므로 고대사상이 오늘에 이를 수 있는 것은 결코 현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세기의 계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중세가 암흑만이 아니었다는 다섯 번째의 이유이다.

## (2). 신앙의 시대

1). 신앙 시대의 정신—흔히 사람들은 중세를 신앙의 시대라고 한다. 특히 이 시대는 이원적인 정신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하나님과 마귀, 천당과 속세, 영혼과 육체, 교회와 국가와 같이 이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종교는 정신과 이상을 대표하고 있었는가 하면, 현세는 물질과 현실을 대표하고 있었다. 중세인들은 정신과 이상을 물질과 현세보다 높고 귀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이 하나의 건설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그들은 야만 중에서 질서—봉건제도를, 야만 중의 예의—기사도 정신으로, 잔인 중의 인자—선남선녀의 고결한 태도로 나타났다.

사실상 중세의 건설이란 오늘날 우리들의 안목으로 보면, 별 볼 것 없는 것이지만, 중세의 입장에서 볼 때, 만일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것이 없었다면, 중세는 분명 암흑의 시대였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은 그리스도교의 공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종교사상이 그 중요 원인인 것만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교회에 통일세력이 없었다면, 이 같은 건설적인 면은 발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친 신앙은 하나의 불행한 사실을 낳기도 했다. 예를 들면, 지나친 정신에 대한 숭배는 왕왕 현실 도피적인 사상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속의 사람들로 하여금 감내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도 신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무상의 안정을 얻게 하였는데 이것 또한 중세 교회가 보급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단 신앙상의 일치는 사상사의 새로운 기운을 저장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중세의 사상이 단조롭게 되어 그리스 사람들처럼 참신한 맛이 있었거나, 현대인처럼 분망하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중세의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당시 지식을 독점하고 있던 전도사들은 계속되고 있던 전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서적을 접할 수 없게 되어 그들의 사상은 서로 비슷했는가 하면, 당시의 사상 또한 종교적인 분위기로 인해 인류란 원죄를 저지른 동물로 보았고, 현세를 하나의 속죄의 기회로 보기도 했다. 특히 전도사들의 책임이란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서적을 접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사상을 가질 수가 없었다.

## 2). 초기의 교회와 정치

기독교가 로마에 유입될 당시 로마 정부는 이를 꺼렸다. 그리하여 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다. 그 이유는 ㉠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존엄사상과 충돌하였고, ㉡ 기독교는 비록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재산상의 희사는 로마의 사유재산에 대한 관념과 달랐기 때문이며, ㉢ 기독교는 만인평등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도 자유인이 되며 만일 속죄의 기회만 있다면, 주인과 같다는 사상이 로마의 전통사상과 상충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기독교는 ㉣ 현실에 대한 반항적인 경향이 농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본래 유대교에도 기원을 두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역사상 타민족의 침략으로 유랑할 때, 그 지도자들이 그 종교를 세워 그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였다. 후일 사도들은 종교의 창성과 교회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현실 거부적인 반항을 띠었고, 이러한 반항감은 종내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성 바울이 카이사르의 권력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이의 좋은 예이다.

중세의 교회는 고전 사상을 계승 접수함으로써 Seneca와 Cicero의 자연법사상에 따라 하나님의 신법관념(神法觀念)을 세웠는데 당시 그들의 관심사는 노예와 재산 그리고 정치권력이었다. 스토아학파의 영혼 평등 관념으로 보면 노예·재산·정치권력은 불합리함으로 모두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면서 노예와 재산 및 정치권력은 다 욕망의 결정체로 자연법에 합당치 않다고 하였다.

## (3). 교권과 정권의 병존

로마 황제가 관리들이 기독교에 귀의한 후, 황제는 교회를 비호하고 교회도 로마의 현상에 대하여 옹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는 신앙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볼 때, 정치권력과 충돌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들 인류는 아담의 후예로 타

락하였고,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그들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국가는 그들의 육체를 관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속죄하여 영생을 획득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국가에도 신성한 사명이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세는 이원적인 시대였으나 교권과 정권은 항상 평등한 위치에서 공존한 것만은 아니다. 정신세계를 관리하는 교회는 처음에는 국가 아래 있다가 후일에는 국가 위에 있었고, 중세말기에는 교회는 또 다시 국가 아래 있었다. 국가와 교회에 관한 이론은 세속적인 권위와 기독교적인 권위와의 논쟁에 따라 그 위치가 달랐지만, 세속적인 권위에 비하여 교회의 권위가 우위에 있다는 이론은 완전한 통일이라는 명목 하에 유럽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한 개의 보편사회 즉, 보편주의적인 단일사회의 이론이 구축되었고, 그 결과,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우위적으로 포괄한다는 이론이 제기되어 교회중심의 일원론으로 전개되었다. 게다가 당시 일반인들의 종교에 대한 열정과 결합하여 교권은 절정에 이르렀다.

#### (4). 정교의 충돌

교권이 절정에 이르자 권위를 누리는 사람은 물욕에 빠지게 되었고, 교황의 위치도 야심 있는 사람의 탐내는 바 되어 그 종교적인 순수성은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세인들은 교회에 대한 봉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주교들은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사치스런 생활을 하기도 했다. 신부들도 결혼할 수 있었고, 교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을 둘 수 있었고,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교는 국왕에 소속된 영주가 됨으로써 교회의 내적 분열을 가져왔고, 때로는 국왕은 그의 사생아나 어린 자식을 주교로 삼으로써 그들의 교만과 사치는 극에 달했다. 때로는 봉건 귀족보다도 더욱 득세하였다. 이 같은 교황청의 부패는 교황 선출을 이태리의 야심가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황은 야심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9세기 후 정권과 교권은 충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교회의 이익과 확대 중의 정치권력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통치영역에서의 모든 전도사·주교·대주교 등은 국왕에 의해 간섭과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주교의 직위가 국왕에 의해 팔릴 때에는 교황청과 격렬한 공방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교회의 농지에 대한 과세 부과도 정교분쟁의 하나였다. 초기 교회이론가들은 교회의 신성성을 들어 세속의 왕의 지배를 인정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재산도 왕의 간여를 인정치 않고 있었다. 그러나 세속의 왕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자연히 정교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 (4). 봉건제도가 정치사상에 미친 영향

유럽 중세의 봉건은 중국 주대의 봉건과는 달리 최초부터 다원적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전체를 통일하는 정치적 권력은 없었다. 주대의 봉건은 천하가 이미 정

해진 후에 천하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대 제후와 소 제후 간에는 일정 비율의 군사력이 있었다. 그리하여 천자는 만승을 가졌는데 이것은 당시 가장 강대한 제후의 10배에 해당되는 군사력이었다. 그러므로 봉건제도가 무너지기 전에 모든 정벌은 천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봉건의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봉건은 그 처음부터 주대의 봉건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군웅 활거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북방의 민족 추장들은 유한한 무력을 가지고 저항력이 비교적 약한 지역을 침입하여 점령한 다음에는 그 토지를 나눠 소 추장들에게 분봉(分封)하는 논공행상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점령지역을 통괄 하는 것이었으므로 대 추장과 소 추장 사이에는 유목민족의 전통으로 보아 계약 관계는 있었지만, 군신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점령지역은 분봉 형식을 취했어도 계약형식이 정착되지 못하여 봉건체계가 수립되지 못하였다. 대 추장들은 통일의 뜻을 있었어도 무력의 한계 때문에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권력형식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장구한 분쟁 상태 아래서는 교회는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인심을 좌우함으로써 계속되었던 전쟁의 와중에서도 평화적인 종교세계를 이루게 하였던 것이다. 중세의 종교와 정치의 병존 상태는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당시 종교사상은 비록 미래의 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속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세의 정치사상은 대체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표시되었다.

세속에 대한 교회의 견해는 상당히 모순되었으며, 정치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개인이 속세 중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직자들의 일관된 견해였다. 이러한 견해는 통치자의 불의는 최후에 가서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단, 왜 세속사회는 잔악한 통치자를 즉각 제재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국왕이 교회권력을 침범할 때, 어떤 전도사들은 인민이 그런 폭군을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신중한 전도사들은 이러한 사상은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치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정치권력에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는 지옥의 고통으로 통치자를 위협하기는 했어도 솔직하게 혁명을 주장할 수는 없었다. 교회의 지옥사상은 중세에 대하여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리하여 호전적인 무사의 경우, 천국은 대단한 매력은 아니었어도 지옥은 두려움의 존재였다.

## 5. 어거스틴·아퀴너스의 생애와 사상

## (1). 어거스틴(St. Augustine A. D. 354~430)

어거스틴은 중세 제 1의 신학자이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평화를 얻는 길이라고 했다.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Hippo의 주교로 그의 청소년기는 심한 방랑기였다. 청년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세례를 받고 경건한 승려가 되었다. 그리고 저술에 전력하여 교회를 신학의 기초 위에 세울 수가 있었다.

어거스틴의 저술로는 『참회록』과 『신국론』이 있는데 참회록은 문학적인 가치가 높은 반면 『신국론』은 그가 13년간에 걸쳐 집필한 것으로 아퀴너스 이전에는 이와 같은 신학에 관한 저작이 없을 정도로 그의 『신국론』은 권위가 있었다. 종교개혁시 루터나 칼빈의 종교이론은 어거스틴의 신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의 고전에 대한 이해는 많지 않았지만, 플라톤을 매우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플라톤 철학에 기초하고 있었다.

## 1). 어거스틴의 신학과 역사관

그의 『신국론』은 주로 천주교를 변호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본래 그리스의 우주관은 주기적인 순환관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리스의 과학자들은 항상 이러한 주기적인 순환의 가정 아래 하나님은 곧 자연의 정신일 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었다. 그들의 관념 중 사람은 반드시 죽는 동물이며 사람의 감각 및 그 외의 가치도 현세에 있을 뿐이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나 로마의 제신(諸神)을 모두 의인화시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현실세계 중의 환락과 생활을 향락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러한 자연주의가 바로 세계를 혼란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면서, 볼 수 있는 사물 중에 있어서 하늘은 가장 크다. 그리고 볼 수 없는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 우주의 존재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신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볼 수 있는 세계를 버리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물은 그 지혜를 믿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주의 만능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우주는 운동 중에 있고 운동은 반드시 먼저 움직이는 힘이 있었으며 움직이는 힘은 반드시 먼저 그 기원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는 그 시원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시원은 하나님의 창조며, 그 움직이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주공간을 창조할 때, 시간을 창조하였으니 우주가 없으면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이 없으면 시간이 없게 된다. 우주가 있으면 움직임이 있게 되고, 움직임이 있으면 시간이 있게 된다. 하나님은 시공을 창조하나 그 자신은 이 같은 말은 어떤 실체를 조사하거나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현세와 천당이 있는데 현세는 인생이 여행하고 잠시 기숙하는 곳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최

후의 심판일에 가서 그 성결(聖潔)에 따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는 바 되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다. 이로써 사람의 의의와 희망은 장래에 있을 뿐 현세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장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장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도 없게 된다고 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역사관이며 인생관이다.

## 2). 원죄(Original Sin)

어거스틴은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는 그의 『참회록』에서 그가 어린 시절 남의 사과를 몰래 따서 땅에 버린 사실을 참회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무익하면서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사악의 표현이며, 또한 사람에게 원죄가 있는 까닭이라고 했다. 이러한 그의 논조는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아동의 파괴행위는 기호나 징계에 대한 보복일 뿐 사악의 표현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교인들은 원죄설을 믿고 있는데, 이 같은 원죄설은 속죄사상을 낳았으며, 사람의 원죄는 선천적으로 유전되어 개인적으로 죄악을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 아무리 인격을 함양한다고 하더라도 죄악을 씻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사상이 도덕 내지 윤리사상과 다른 점이다. 윤리학자들은 사람의 선악은 다 자신의 행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자주적인 존재로 선악의 행위는 모두 개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죄악은 원시적인 것이어서 선행은 다만 악을 증가시키지 않을 뿐 이전의 죄는 씻어버릴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원죄와 성악설과는 구별되는 면이 있는데, 성악을 말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데, 그들은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악성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비록 성(性)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전에는 그에게 죄가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죄 무죄는 완전히 그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데 반해 원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를 씻거나 속죄치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관념이나 의식에서는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죄설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가치를 가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원죄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되지 않으면 안 되며, 현세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영욕이나 득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현세의 임금이란 보통 사람과 같이 속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현세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며 세례를 행하고 기도를 하는 목사와 전도사들에 의한 의식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은 얻을 수 없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현세의 임금 그리고 현세인의 중간에 있는 소개인이라는 것이다.

## (2).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A. D. 1225~1274)

아퀴나스는 권문세가에서 출생하였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대학에서 공부했다. 19세에 사원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고 그 후 파리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49세를 일기로 조사하였지만, 그가 남긴 저술은 대단히 많다. 그는 파리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접하고 매우 열심히 연구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의 저서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위대한 점은 저술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혼합 조화시킨 데 있다고 하겠다. 그의 신학은 이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그는 “철학 연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였는가를 아는 데 있지 않고, 진리의 진상이 어떠한가를 아는 데 있다” 고 하리만큼 진리 추구의 정신이 뚜렷하였다.

## 1). 아퀴나스의 인성관

아퀴나스는 사람의 심리에 대하여 그 특유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전의 신학자들 대부분은 영혼은 육체에 감금되어 있다고 믿으면서 육체야말로 죄악의 근원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수양과 양성(養性)의 사람들은 먼저 육체의 작용을 제거하는 있다고 하였으나, 아퀴나스는 영혼은 육체의 동력이라고 하면서 생물과 무생물의 주요 구분은 곧 영혼의 유무에 있고, 모든 생물은 그 스스로 그 자체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무생물과 같이 피동이 아닌 것은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에는 3등급의 상이한 작용이 있는데 가장 저급의 것은 식물처럼 성장을 주관하고 그 다음의 것은 감각기관을 주관함으로써 지체로 하여금 듣고 보고 느끼게 하며, 최고급의 것은 이성을 주관하는데 사람의 영혼은 이 3등급의 작용을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감각·시비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다.

아퀴나스 이전의 신학자들은 영혼은 육체 가운데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수양이란 영혼의 해방이라고 하여 육체적인 학대가 곧 영혼을 해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영혼을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양의 길은 이 영혼에 충실한 것일 뿐 영혼의 해방은 아니라고 하여 도덕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아퀴나스의 이러한 관념은 영혼과 육체는 일체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세의 영육이원론(靈肉二元論)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맞게 하였다. 영혼은 육체에 의지하여 감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떠나서는 감각할 수 없고, 지식을 쌓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 감각이란 개별적인 경험으로 체계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지식을 이룰 수 없으나 경험은 영혼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영혼은 경험에 있어 지혜와 의지의 작용을 가진다는 것이다. 하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지향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아퀴나스는 지혜를 중시하였다. 왜냐하면 지혜는 어떤 것이 사랑스럽고 즐길 수 있는가를 판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이 굳은 의지만이 있을 때, 착오

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지혜와 의지는 학습과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영혼의 미화나 순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그의 학설은 인간의 자주능력이나 작용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를 증가시켜주기도 하였다. 아퀴나스가 영혼을 능력으로 간주한 것은 그의 사상으로 하여금 근대정신에 접근시킬 수 있게 하였다. 사람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도덕적인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귀천과 빈부로 나누어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현불초(賢不肖)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부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그의 자연법관념과 관련된 것으로 그는 합리적인 것은 모두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현불초의 구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현불초는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자제할 수 없으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제재를 받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퀴나스 이전의 많은 교회사상가들은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낙원에 있어 인류는 사욕이 없기 때문에 사유관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재산제도에 대하여 획득과 사용 면에서 설명하였는데 획득 면에서 말하면, 사유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자연법에도 합치된다고 하였다. 사람은 현불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명한 자가 획득하는 것이 많은 것은 너무 당연함으로 반드시 평등을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사유는 분쟁을 막는 방법이라고도 했다. 왜냐하면 내 것과 네 것이 정하여지면 다시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 면에서 말하면, 물건은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데 있으므로 공유(公有)는 자연법 정신에도 합치된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이식은 금지되어야 하고 수요를 위한 도둑질도 합리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타인을 도와 도둑질하는 것도 허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 2). 국가의 성질

국가는 자연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국가는 인류의 자연적인 조직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자연능력은 금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지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금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의사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협력을 가능케 하였는데 이로 인해 공동선(common good)을 이룬다고 하였다.

통치의 원리에서도 그는 다수의 사람이 모여 살면 우두머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동선을 소홀히 하게 되는 데서 지도자의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통치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 첫째는 주인이 그 노예를 통치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통

치하는 경우이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낙원에 있을 때에는 전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후자는 존재하였다고 했다.

중세 국가에 대한 관념은 국가는 비 자연스런 존재라고 하였지만, 아퀴나스는 국가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의 궁극적이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인데 국가는 비록 공동선을 추구하는 기능을 가지나 그것은 한층 낮은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국가의 통치자는 신도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념은 중세 경전학파의 전통적인 관념이기도 했다.

그리고 국가에는 통치자가 없을 수 없는데 통치자는 정부를 조직하고 정부의 체제는 군주체제·귀족체제·민주체제가 있는데 그중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 중세의 전통은 군주정치가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군주는 쉽게 전체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는데 군주전제의 군주는 만민을 화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즉 효율의 발휘라는 면에서는 군주정치가 좋으나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공민이 없다는 것이다. 인민은 복종에 익숙한 나머지 자립 능력이 없게 되므로 정치권력에 대해서 제재 작용을 발휘할 수 없고, 민주정치는 다수인이 국가 정책에 참여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결함이라고 아퀴나스는 하였다. 인민은 현불초가 부제(不齊)하다는 인성에 대한 그의 가정하에 다수인의 참정에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이 참여하면 반드시 절대적인 평등을 주장하게 될 것인데 이는 공정과 자연법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그리하여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혼합정체를 주장하였는데 그가 주장한 혼합정체는 그 구체적인 형식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지는 않았다. 그는 한 군주의 세습군주를 주장하였고, 군주 아래 장로 회의로 보필케 하고 그들은 평민에서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합정체는 당시의 정치제도와 다른 것으로 순전히 아퀴나스 개인의 이상인 것이다. 당시 영국·프랑스·스페인의 정부는 비록 의회 또는 그와 유사한 자문기구를 갖고는 있었지만, 민선은 아니고, 그 구성 분자도 평민은 아니었다. 그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임금은 비록 세습이지만, 그의 중요한 자문 또는 공동의 입법자는 장로로 한 나라의 어진 사람들로 귀족적인 정신이 농후한 것이었다. 장로를 민간이 선출함으로써 민주 정신을 고려하고 있었다.

## 6. 르네상스시대의 사상적 성향과 특성

### (1). 르네상스시대의 중요성

문예부흥이 서양사에 미친 중요성은 무엇인가? 과거의 사가들은 문예부흥은 유럽

에 있어 각성시기라고 하면서 문학·예술·철학·사상·경제·정치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면목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없다면 문예부흥이야말로 한 시대에 획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새로운 기적을 발생시켰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그들은 역사를 연속적인 것으로 보면서 문예부흥의 성립은 반드시 그 연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중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야만도 암흑도 아니라고 하였다.

특히 Gierke 같은 사람은 중세가 그 이전의 사상가들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문예부흥을 역사의 연속성에서 풀이하고 있다. 사실상 문예부흥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연속성에서 살핌으로써 문예부흥의 연원을 구명하여 그 일부가 근대에 연속되고 있다고 했다.

Will Durant 같은 사람은 문예부흥을 1300-1600에 걸친 새로운 사조의 등장을 문예부흥시대라고 했다. 그의 이러한 구분은 14세기가 이탈리아 경제의 번영시기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시기에 경제적인 기초가 없었다면 웅장한 건축물은 없었을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에는 건축학은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고, 조각이나 회화를 말할 수 있는 거대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건축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시를 읊고 글을 다듬는 문인들의 활동도 15-16세기에 크게 일어났으니 14세기는 이러한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문예부흥시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중세가 신앙을 중시한 시기라면 문예부흥시대는 현세를 중시한 시대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세인이 현세를 중시하지 않았거나, 문예부흥시기에 신앙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흥한 문예부흥은 그것을 이탈리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이 문예부흥이 유럽의 새로운 사조로 보는 근거라고 하겠다.

## (2). 종교적 구속력의 약화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14세기 이후의 이탈리아는 하나님을 여전히 존경했지만, 종교적인 구속력은 약화되었던 세기였다. 그리하여 베니스 상인들의 격언에 ‘먼저 베니스인들 그리스교도는 나중’ 라고 하는데 이는 종교적인 신앙을 차위(次位)에 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Florence시의 시민들은 교사(敎士)로 하여금 양털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선전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모직업의 코스트를 낮추려 했다. 그것은 종교를 이용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뿐만 아니라, 중세 말엽의 사상가들은 교황이 곧 교회는 아니라고 말하기까지 했는가 하면, 심지어는 교회를 대표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문예부흥시대에 와서는 곧 하나님에 대한 불경은 아니라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교황의 존엄에 대한 동요로 교황은 교회와 종교적인 문제에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종교의 본령은 신앙이며, 신앙은 개인의 내심의 선택일

뿐 외재적인 힘으로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종교적인 구속력의 약화는 교회로 말하면 불행한 일인지 몰라도 그것은 근대정신의 발달을 도와주는 계기가 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문예부흥을 근대의 개시라고 하나, 이 말은 이 시대의 지식분자가 다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 학자들은 거의가 고전주의적인 신앙자들로 옛 것을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정신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문예부흥은 신앙으로부터 과학으로 가는 과도기였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근대정신이란 사실을 중시하는 과학적 태도를 말하며 이런 정신의 발양은 신학이 발달되었던 중세에서는 많은 제한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신학 중의 천당이 강조되면 될수록 현실은 경시하게 되고 심지어는 현실을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면 현실상의 진상은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 문예부흥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속으로의 회귀케 함으로써 부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생활상의 향락을 추구하게 하였고, 예술가는 탐미를, 과학도들은 현실을 추구하게 하여 일시나마 도덕적인 타락과 인간의 욕망이 중시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는 다 중세로부터 근대로 가는데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문예부흥시대의 사람들의 인생관은 과거 그리스의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을 존중하는 경향으로 흘렀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국가를, 사람으로 종교를 보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인본주의(Humanism)는 그 후 유럽 사상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사람으로 국가를 보았기 때문에 국가는 사람이 추구하는 복지의 도구로 간주되었고, 사람으로 종교를 보았기 때문에 신앙도 완전히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와 국가는 더 이상 강제성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문예부흥시대에는 인본주의가 성립되고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